

복음서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증언일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신약에 등장한 예수의 이야기를 믿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존재할까요?

최근 ABC 뉴스 진행자 피터 제닝스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The Search for Jesus”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신약 속 예수가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존재인지 묻습니다.

제닝스는 드폴 대학 교수인 존 도미니크 크로산과 그의 동료이자 지저스 세미나(Jesus Seminar) 출신 교수 3명, 그리고 2명의 성경 학자로부터 복음 속 이야기에 대한 견해를 듣습니다 (지저스 세미나[Jesus Seminar]는 그동안 기록된 예수의 말과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 복음서 속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의 정도를 빨간색, 분홍색, 회색 또는 검은색 구슬로 투표하는 학자들의 모임입니다).[1]

이 프로그램에서는 놀라운 논평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크로산 박사는 예수의 발언 중 80% 이상에 대해 의심을 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성하다는 예수의 주장과 예수의 기적 및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제닝스는 분명히 크로산이 묘사한 예수의 이미지에 흥미를 가진 듯 했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역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언제나 뉴스거리이며 그러한 이유로 해마다 뉴스위크나 타임지 등에서도 마리아, 예수, 모세, 아브라함 등에 대해 커버스토리를 다루기도 합니다. 아니면, 올해에는 “최초 공개, 13번째 제자 밥의 이야기”라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다루어질 지도 모릅니다.

이는 연예 기사나 다름없으며 그에 대한 조사도 끝없이 진행되겠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온다면 소재거리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서바이버' 프로그램의 에피소드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섞어 명확한 내용을 보여주는 대신 답이 나올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닝스의 보도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크로산은 예수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다른 구전으로 만들어졌으며 제자들이 죽고 나서야 제대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이야기는 대부분 믿기 어려우며 실제 예수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요?

번역이 문제였을까요?

그렇다면 증거는 어떨까요? 2가지 간단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원본은 언제 작성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작성했을까요?

이 질문의 중요성은 명백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를 본 이들이 사망한 후 작성된 것이라면 그 정확성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작성된 시점이 제자들이 생존할 때라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짜 신약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이, 그건 내가 쓰지 않았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도 예수를 비난할 목적으로 던지는 질문 등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을 쓴 이들은 예수에 대한 실제 증언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그가 장엄하게 빛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베드로후서 1:16 NLT)

신약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젊은 교인들에게 보낸 13건의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한은 40~60년(서기 12~33년)으로 되어 있으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월 듀란트는 바울의 서한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적 증거는 성 바울이 작성한 서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도 바울의 존재나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과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는 없었으며, 바울은 이들이 예수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러워했습니다."[2]

하지만 사실일까요?

여러 책, 잡지,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저스 세미나에서는 복음서가 무명의 작가들에 의해 서기 130~150년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시기가 정확하다면 예수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약 100년간의 시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학자들은 예수가 서기 30~33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본 사람들도 모두 사망했으므로 복음서는 무명의 거짓 저자들이 썼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복음 속 이야기가 쓰여진 시점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복음서가 1세기 중에 제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 본 기사에서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들의 결론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3가지 주요한 증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약과 그 주제 및 문구를 인용한 마르시온(Marcion) 및 발렌티누스(Valentinus) 학파와 같은 이단자들의 초기 문서 ("Mona Lisa's Smirk" 참고)
-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이그나티우스(Ignatius), 폴리카프(Polycarp) 등과 같은 수많은 초기 기독교 문서
- 탄소측정연대가 서기 117년경까지 올라가는 복음 사본

성경 고고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자신의 연구를 근거로 신약의 내용은 모두 제자들이 대부분 생존했을 때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평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신약 중 어떤 책도 서기 130~150년 사이 시점으로부터 2세대나 앞서는 서기 80년경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4] 다른 기록을 보면 올브라이트는 신약 전체의 작성 시점을 "서기 50~75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5]

회의론자로 유명한 존 A. T. 로빈슨의 경우 신약이 쓰여진 시기를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보다 더 빠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인 "Redating the New Testament"에서 로빈슨은 신약의 내용 중 대부분은 서기 40~65년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후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신약이 쓰여졌다는 의미가 됩니다.[6]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이나 예수의 적들이 즉시 역사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이 완성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본의 수

신도들은 제자들이 작성한 원본을 소중히 모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원본들을 연구하고 공유했으며 마치 보물처럼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탄압과 2천여년의 세월이 흘러 열역학 제 2법칙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원본 중에서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사본 원본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직도 혹시나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 고고학 관련 프로그램인 *Antiques Roadshow*를 열렬히 시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외에도 비슷한 고대 문서들이 이러한 운명을 겪어 소실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이라도 연구할 만한 사본이 있다면 필사본 원본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고대 사본은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존재한다면 원본과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요?

교회의 수가 급증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감독 하에 작성된 사본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지에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적은 사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남겨진 사본들을 연구하여 (또는 사본의 사본, 아니면 사본의 사본의 사본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용을 검증하고 원본에 대해 최대한 가까운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문 비평이라는 방법을 개발하여 오디세이와 같은 고대 작품과 다른 고대 문서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 역사학자인 찰스 샌더스는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테스트 방법으로 본문 비평을 더욱 보완했는데 이는 사본의 사실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작자의 신뢰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서 검증법
2. 내부 증거 테스트
3. 외부 증거 테스트[7]

이러한 테스트를 신약의 필사본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서 검증법

이 방법은 한 문서가 작성된 동일한 시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사용됩니다.

- 원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본이 존재하는가?
- 원본과 가장 초기의 사본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 원본 문서가 그 시대의 고대 역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사실적인가?

이를테면 신약 필사본에 대해 사본이 2~3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샘플링을 해도 너무 양이 적어서 정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본이 수백개, 수천개라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상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할 때 사본의 수와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차가 어떠할까요? 오늘날 그리스어로 작성된 신약의 필사본은 5천건이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 언어 번역본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도 2만 4천여건이 되며, 작성 시기는 2~4세기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잘 보관된 고대 문서라 할 수 있는 호머의 일리아드의 경우에는 사본이 643건에 불과합니다.[8] 게다가 대부분 고대 문서는 현존하는 사본이 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대개 10건 이하). 신약 학자인 브루스 메츠거는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본의 수에 비해 신약의 본문 비평은 그 풍성함이 비할 바가 못 됩니다.”[9]

원본과의 시간차

이러한 사본의 수 외에도 원본이 작성된 시점과 사본이 만들어진 시점 간의 시간차 역시 중요합니다. 수천년 동안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어 전해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수백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독일의 비평가인 바우어(Ferdinand Christian Baur)(1792~1860)는 요한복음이 서기 160년경까지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요한이 썼을리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요한의 글에 대한 사실성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전체 신약의 사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파피루스 조각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그 중에는 요한복음의 조각도 있었으며(구체적으로는 P52, 요한[John] 18:31~33) 그 작성 시점은 요한이 원본을 쓴 후 약 25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메츠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모래사장에서 단 하나의 발자국을 발견한 다음 두 발을 가진 다른 인간이 같은 섬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P52[발견된 조각에 붙인 이름]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소아시아의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나일강 인근의 마을에서 2세기 중반에 제 4의 복음서가 존재 및 사용되었음을 입증합니다." [10] 수많은 노력 끝에 고고학계에서는 원본 작성 후 150년 후까지 추정되는 신약 사본들을 발굴해냈습니다.[11]

대부분 고대 문서는 400년에서 많게는 1,400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oetics)"은 기원 전 343년 경에 쓰여졌지만 그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도 작성 시점이 서기 1100년에 불과하며 단 5개의 사본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소방관이었던 주장 내세우며 조사에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이라고 불리는 거의 완전한 성경의 사본은 제자들의 원본이 작성된 후 단 250년에서 300년 사이 후에 작성되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완전하고 오래된 사본은 시내 사본(시내 사본)이라고 불리며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작성 시기는 바티칸 사본과 마찬가지로 4세기 경으로 추정됩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다른 성경 사본과 마찬가지로 내용상 서로 큰 차이가 없으며, 원본의 이야기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힌트라 할 수 있습니다.

비평가 존 A. T. 로빈슨도 이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본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원본과 가장 오래된 현존 사본 간의 좁은 시간차를 고려할 때 전세계 고대 문서 중 가장 증빙이 확실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12] 법학 교수인 본 워윅 몽고메리도 이런 말로 힘을 보태었습니다. “신약의 최종적인 사본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고대 문서와 문학 작품들의 사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고대 문서도 신약처럼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3]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약이 실제 사건과 매우 근접하게 작성되고 사람들이 돌려서 보았다면 거기에 나온 예수에 대한 언급 역시 정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증거 외에도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학자들의 경우 내부적인 증거를 통해 신뢰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시내 사본의 발견

1844년에 독일의 학자인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는 신약의 필사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시내산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종이가 가득한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독일 학자는 충격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그리스어 필사본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티센도르프는 도서관 관리인에게 이 바구니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 종이를 뿔감으로 쓰려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두 바구니나 되는 문서들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티센도르프의 열정적인 모습에 수도사들은 겁을 먹었고 다른 사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43**장의 문서는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15년 후 티센도르프는 시내산의 사원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2**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원에서 머무르는 동안 한 수도사가 티센도르프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천으로 싸서 물잔과 접시와 함께 찬장에 보관되고 있었던 필사본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티센도르프는 곧바로 이 뭉치가 예전에 본 필사본의 일부임을 알아챘습니다.

사원에서는 이 사본을 그리스 교회의 수호자인 러시아 황제에게 증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33**에 소련 연방은 **10**만 파운드를 받고 이 사본을 대영 박물관에 팔았습니다.

시내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신약 사본으로, 그 중요성도 가장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내 사본에 대해 콘스탄티누스 **1**세가 **4**세기 초에 유세비우스 교황에게 작성하도록 맡긴 **50**개의 성경 사본 중 하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시내 사본은 신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부 증거 테스트

훌륭한 탐정과 같이 역사학자들은 내부 증거를 통해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작가들이 문서를 남긴 의도와 확인 가능한 세부 사항 및 그 밖의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학자들이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적인 내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인들이 남긴 보고서의 일관성
- 이름, 지역명, 사건의 세부 사항
-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에 발송된 서한
- 저자들에게 난처한 내용
- 중요성이 낮거나 역효과를 낳는 내용의 존재 여부
-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14]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Friday Night Lights*)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영화와 마찬가지로 보는 이들은 "정말 저랬을까?" 하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한가지 힌트는 중요성이 낮은 내용의 존재 여부입니다. 영화 중간에 한 등장인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줄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후에도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요성이 낮은 이 사건에 대해, 실제로 발생했으며, 영화 감독은 역사적 정확성을 유지하려 이 사건을 끼워넣었다는 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영화에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극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퍼미안 팬더스 미식 축구팀이 주 챔피언십을 따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승리하지 못하며, 이는 극 자체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느낌을 주지만 관객은 실제로 퍼미안 팬더스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역효과를 가져오는 내용의 존재 역시 역사적 정확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역과 휴스턴 아스트로돔(*Houston Astrodome*)과 같이 익숙한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관객은 영화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는 확증이나 위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부적 증거를 통해 한 문서에 대한 역사적 정확성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제 신약의 역사적 정확성을 나타내는 내부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일부 측면은 그 내용과 품질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성

위조된 문서라면 목격자의 증언이 없거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드러난 명백한 모순은 복음서에도 오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각 복음서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공모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자들이 계획의 세부적인 부분을 맞추기로 합의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일관성이 너무 강해도 너무 부족한 경우처럼 의심을 사게 됩니다.

범죄나 사고를 목격한 증인들은 일반적으로 큰 줄기는 옳게 보지만 그 관점은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복음서 역시 예수의 삶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관점과 무관하게 성경 학자들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예수 및 그 가르침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점,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

역사학자들은 문서에 나타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상세할수록 좋아합니다. 바울의 서한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 역시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과 누가의 사도행전의 수신인인 데오발로라는 각하였는데 그는 당시 유명한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꾸며냈다면, 꾸며낸 이름, 장소 및 사건은 제자들의 적인 유대인과 로마 관료들이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는 1세기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세부사항들은 대부분 각기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역사학자인 콜린 헤머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16개 장에서 84개의 사실이 고고학 연구를 통해 확인"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회의론적인 성경 학자들은 누가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대해 공격했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신원 미상의 작가에 의해 2세기 중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램시 경은 이들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 램시 경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누가야말로 최고의 사학자입니다... ...이 분은 역사상 최고의 사학자들과 함께 존경받아야 합니다... ...누가가 남긴 역사는 그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16]**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가 방문한 곳, 만난 사람들, 전달한 메시지, 그리고 그가 받은 핍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위조되었을 수 있을까요? 로마 역사학자인 A. N. 셔원화이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은 넘칠 정도입니다. ...그 기본적인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아닙니다. 로마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를 당연시해왔습니다."**[17]**

복음서의 이야기에서부터 바울의 서한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작가들은 세부적인 내용의 모든 것을 공개했으며 당시 생존한 이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름 중 적어도 30개 이상을 확인하였습니다.**[18]**

소집단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

위조된 내용 중 대부분은 본 기사와 같이 일반적이고 공개된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분명히 암시장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위조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 전문가인 루이스 고트샤크는 소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서한은 신뢰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19]** 그렇다면 신약은 어떠한 범주에 속할까요?

신약 중 일부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소집단의 사람들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내용은 위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난처한 내용

많은 작가들은 자신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들은 저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대해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놀랍게도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우둔하고 겁이 많으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으며 제자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논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제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제자들 스스로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20]**

월 듀란트는 문명 이야기(The Story of Civilization)에서 제자들에게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개조하려 하는 유형과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들의 성격에 대해 현실적으로 차별화했으며 이들의 잘못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21]**

역효과를 낳거나 중요성이 낮은 내용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빈 무덤을 한 여성이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신약에 적힌 일련의 사건들 역시 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역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이방인 선교, 은사, 세례, 리더십 등 1세기 기독교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중에서 예수가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거의 없다는 점은 모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는 논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단지 기독교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내용을 꾸며내고 있었다면 왜 이들이 예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위조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소."

외부 증거 테스트

문서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3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외부 증거 테스트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약 외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기독교인 역사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최소한 17건의 비기독교 문헌 기록에 예수의 삶, 가르침, 죽음 부활과 관련된 세부사항 50개 이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22]** 이는 같은 시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는 같은 시대의 인물인 카이사르의 정복보다 더 많은 문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예수가 죽은 후 20~150년 사이, 즉 고대 역사기록학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신뢰성은 36,000 건이 넘는 성경 외의 문서(첫 3세기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말)를 통해 더욱 높아지며 이 문서들은 신약의 마지막 기록 이후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되었습니다.**[24]** 신약 사본 전체가 유실되었다면 몇 개 구절이 빠지더라도 이러한 다른 서한에서 다시 그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25]**

보스턴 대학 교수인 하워드 클락 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 외 출처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즉 그의 역사적인 존재, 비범한 능력, 추종자들의 헌신, 예수가 죽은 후에도

멈추지 않은 예수에 대한 추종, 그리고 기독교가 1세기 후반에 로마에 전파되었다는 점 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26]

외부 증거 확인은 이렇게 기타 확인에서 제공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더욱 확신을 줍니다. 일부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의 억측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은 거의 누구도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저스 세미나와 같은 전문가들의 모임에서는 종교적인 믿음과 무관하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의 내용이 예수의 삶과 사건을 모두 충실히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신학 대학(McMaster Divinity College)의 통번역 교수 클락 피낙의 이 말이 요점을 잘 정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서 이 정도로 훌륭한 문서 및 역사적 증언은 없습니다. ...정직한 이라면 이러한 문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은 비이성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27]

예수는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입니다. 예수는 단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 요한 등 사도들이 믿은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신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는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부활했을 때 실제로 육체가 살아난 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잘못되었다면 기독교의 근간은 거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들이 옳다면, 그러한 기적은 예수가 신과 그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말한 모든 발언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단지 믿음만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증거가 존재할까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곳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주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다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삶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신께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인가?"에서 놀랄만한 답변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곳을 클릭하면 "왜 예수인가?"를 읽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인가?"는 예수가 오늘날 갖는 중요성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삶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과거의 성당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도 그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예수는 우리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남겨두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삶의 의미에 대해 말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예수에 대해 부정하고 무능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Endnotes – Are the Gospels True?

1. According to jesusseminar.org, "The Jesus Seminar was organized under the auspices of the Westar Institute to renew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t the close of debate on each agenda item, Fellows of the Seminar vote, using colored beads to indicate the degree of authenticity of Jesus' words or deeds."
2. Will Durant, *Caesar and Christ*, vol. 3 of *The Story of Civiliza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1972), 555.
3. Josh McDowell, *The New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9), 38.
4. William F. Albright, *Recent Discoveries in Biblical Lands* (New York: Funk & Wagnalls, 1955), 136.
5. William F. Albright, "Toward a More Conservative View," *Christianity Today*, January 18, 1993, 3.
- 10
6. John A. T. Robinson, *Redating the New Testament*, quoted in Norman L. Geisler and Frank Turek, *I Don't Have Enough Faith to Be an Atheist* (Wheaton, IL: Crossway, 2004), 243.
7. McDowell, 33-68.
8. McDowell, 34.
9.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34.
10. McDowell, 38.
11. Metzger, 39.
12. Metzger, 36-41.
13. John A. T. Robinson, *Can We Trust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36.
14. Quoted in McDowell, 36.
15. J. P. Moreland, *Scaling the Secular City* (Grand Rapids: Baker, 2000), 134-157.
16. Quoted in Geisler and Turek, 256.

17. Quoted in McDowell, 61.
18. Quoted in McDowell, 64.
19. Geisler and Turek, 269.
20. J. P. Moreland, 136-137.
21. Geisler and Turek, 276.
22. Durant, 563.
23. Gary R. Habermas, "Why I Believe the New Testament is Historically Reliable," Why I am a Christian, eds Norman L. Geisler & Paul K. Hoffman (Grand Rapids, MI: Baker, 2001), 150.
24. Ibid.
25. Ibid.
26. Metzger, 86.
27. Quoted in McDowell, 135.
28. Quoted in Josh McDowell, The Resurrection Factor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Publishers, 1981), 9.

주석

본 기사에 대한 복제 허가: 출판자는 서면 승인 없이 본 내용에 대한 복제를 허가하나, 내용에 대한 수정이 없어야 하며 비영리적인 목적일 시에만 해당합니다. 출판자의 서면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전후 관계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와 *Y-Origins* 및 *Y-Jesus* 지의 인쇄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http://jesusonlineministries.com/resources/products/>

© 2012 JesusOnline Ministries. 본 기사는 Bright Media Foundation & B&L Publications에서 *Y-Jesus* 에 부록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Larry Chapman, 편집장

예수 그리스도 관련 증거에 대한 기사를 더 보시려면 www.y-jesus.com을 방문해 주십시오.